

## 임상실습 1년차의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

제남주<sup>1</sup>, 화정석<sup>2</sup>, 박미라<sup>1\*</sup>  
<sup>1</sup>창신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경상대학교 의과대학

### Factors Affecting the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the First Year of Clinical Practice

Nam-Joo Je<sup>1</sup>, Jeong-seok Hwa<sup>2</sup>, Meera Park<sup>1\*</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Ur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and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 1년차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임상실습적응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G도의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였고, 자료분석은 IBM SPSS WIN/21.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을 사용하였다. 대학적응은 평균 3.37점, 인성은 평균 3.82점, 대인관계 유능성은 평균 3.61점, 의사소통은 평균 3.56점, 임상실습적응은 평균 3.54점이었다. 임상실습적응은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과 순상관계가 있었다( $p < .001$ ). 임상실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유능성( $\beta = .502, p < .001$ )이었고, 그 다음으로 학과적응( $\beta = -.215, p < .001$ ), 대학적응( $\beta = .174, p = .010$ ) 순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41.1%이었다( $F = 34.11, p < .001$ ). 따라서 임상실습적응의 향상을 위해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는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마련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타인의 이해와 타인수용이 필요하다. 또한, 반복적인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for the first year of clinical practice. The subjects were 153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in G-do.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 to April 30, 2019, and analyzed using a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IBM SPSS WIN/21.0. The mean of college adjustment, character, interpersonal competence,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was 3.37 points, 3.82, 3.61, 3.56, and 3.54, respectively.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was related to college adjustment, character,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 $p < .001$ ).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clinical practice was interpersonal competence ( $\beta = .502, p < .001$ ), followed by department adaptation ( $\beta = -.215, p < .001$ ) and college adjustment ( $\beta = .174, p = .010$ ), respectively. The explanatory power was 41.1% ( $F = 34.11, p < .001$ ). Therefore, a way to improve interpersonal competence is needed to advance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In the character building program for adjustment to college life, systematic education is needed, including the opportunity to think about and understand oneself, continuous meeting to understand and accept others. In addition, repeated communication training to improve interpersonal competence is needed.

**Key Words** : Adaptation, Clinical Practice, Communicative, Competence, Healthcare

\*Corresponding Author : Meera Park(Changshin Univ.)

email: minerva32@cs.ac.kr

Received July 17, 2019

Accepted November 1, 2019

Revised August 22, 2019

Published November 30,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적응을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1]. 의사소통 능력이란 자신의 생각 및 감정을 자신의 의도대로 타인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2],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3]. 대학생 시기의 의사소통능력이 대인관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4-7].

대학생의 대인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주는 중요한 과업이다. 원만한 대인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대학을 졸업한다면 졸업 이후에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도 문제가 이어진다[8]. 대인관계는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의 중요하다[9]. 따라서 원만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인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10].

선행연구[11-13]에서 의사소통은 대상자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고, 돌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환자 간호와 관련된 타부서 및 조직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즉, 대상자, 돌봄자 및 의료종사자와의 의사소통은 대상자 중심의 전인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14]. 그러므로, 의사,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과 의사소통 정도를 확인하고, 학부교육부터 대인관계 유능과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제로 사용가능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술 훈련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대학의 역할 중 하나는 효율적인 사회인을 배출하는데 있다. 타인을 대하는 자세인 배려, 성실함, 타인 존중 등의 인성교육은 다양한 대상자들을 접촉해야 하는 예비의료인이 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15]. 따라서 예비의료인의 인성과 대인관계는 학부 때부터 교육을 통해 꾸준히 훈련·강화되어야 한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의학과나 간호학과를 진학할 때

본인의 적성과 상관없이 높은 취업률과 부모의 권유 등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의대진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반수이상은 주위사람의 조언에 영향을 받았다. 그중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부모가 의대를 권유한 이유는 사회경제 측면이 가장 흔하였다[16]. 이렇게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률과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진학한 경우,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들이 대학과 임상실습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학과나 간호학과는 특성상 타 과에 비해 공부량이 많고,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습 시 절차수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크다[17-19].

임상현장에서의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등 실습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데 어려움과 많은 제약이 따른다. 최근 의학교육의 발전으로 인해 환자의 다양한 증상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진단기법 및 환자에 대한 술기가 발달하고 있어 임상실습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부정적인 적응을 하면 능력 있는 의료인력의 양성이 어렵게 된다[20]. 임상실습을 하는 1년차 때 부정적인 경험이 앞으로의 임상실습과 졸업 후의 병원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특히 임상실습 1년차의 실습적응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성찰이 필요하며 의료인으로서 인성적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21].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족한 인성영역, 대인관계 유능성영역, 의사소통 능력영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역량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 임상실습을 마친 의과대학 3학년과 간호대학 3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적응, 인성,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교육과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내용구성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시행하였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 1년차를 대상으로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임상실습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적응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적응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적응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 1년차의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G도의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 중 임상실습1년차 학생을 편의추출 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0 프로그램 [22]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효과크기(effect size) .15 (중간),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1- $\beta$ ) .80, 변수 16개로 산출한 결과, 적정표본 크기의 최소 인원은 139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미흡한 12부를 제외하고 153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적응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23]를 참조하여 연령, 성별, 종교, 동아리 활동여부, 거주형태, 부모님 경제력, 성격, 학과적응, 면담 횟수, 지난학기 성적의 총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2.3.2 대학적응

대학적응은 선행연구에서 개발한[24]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료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의 5개 하위영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적응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이었다.

#### 2.3.3 인성

인성은 선행연구[25]에서 개발한 대학생용 바롬인성 척도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60개의 문항으로 3개의 하위 영역인 인지, 정의, 행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영역은 23개 문항(도덕적 인식 4문항, 도덕적 가치를 알 7문항, 도덕적 추론 3문항, 반성적 의사결정 3문항, 자기이해 3문항, 주도적 삶에 대한 인식 3문항), 정의영역 25문항(양심 5문항, 자기존중 4문항, 감정이입 5문항, 선에 대한 사랑 4문항, 자아통제 2문항, 공동체 의식 5문항), 행동영역12문항(의지 및 능력 7문항, 습관 5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9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97이었다.

#### 2.3.4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Interpersonal Competence)은 일반적 대인관계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 Forman, Wittenberg & Reis[26]가 개발하고 Kim & Kim[2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가지 대인관계영역으로, (1) 처음 관계맺기-다른 사람과 관계 및 상호작용을 개시하는 것, (2)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자신의 권리나 불쾌함을 주장하는 것, (3) 자기노출-개인적인 정보를 개방하는 것, (4) 정서적지지 및 조언-다른 사람을 정서적으로 지지 하는 것, (5) 대인관계 갈등 다루기-갈등을 관리하는 것 각각을 측정하는 문항 8개씩으로 구성되어 총 40문항이다.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Kim & Kim[2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9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94이었다.

#### 2.3.5 의사소통능력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Lee 등[28]이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중 대학생/성인용 의사소통 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해석능력(정보수집, 경청), 역할수행 능력(고정 관념적 사고극복, 창의적 의사소통), 자기제시 능력(자기 드러내기), 목표설정 능력(주도적 의사소통), 메시지 전환 능력(타인관점 이해)의 5가지 세부 능력 요소와 7개 하위요인, 그리고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지만 응답의 편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 중 15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점의 범위는 49점에서 24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alpha=.80$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2$ 이었다.

### 2.3.6 임상실습적응

임상실습적응은 Park[23]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7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2$ 이었다.

### 2.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적응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적응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

통능력, 임상실습적응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G도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3)

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SD
Age (year)		23.37±4.17
Sex	Male	44(28.8)
	Female	109(71.2)
Religion	Yes	59(38.6)
	No	94(61.4)
School leave	Yes	15( 9.8)
	No	138(90.2)
Circles activity	Yes	79(51.6)
	No	74(48.4)
Residence type	With parents	53(34.6)
	Dormitory	54(35.3)
	Alone or Other	46(30.1)
Economic ability of parents	Top	16(10.5)
	Medium	125(81.7)
	Down	12(7.8)
Personality	Extrovert	22(14.4)
	Introspective	32(20.9)
	Mixed	99(64.7)
Department adaptation	Well adapted	83(54.2)
	Difficult but trying to adapt	70(45.8)
Number of professor counseling		2.38±1.69
Last semester grade	< 3.5	112(73.2)
	≥3.5	41(26.8)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3.37±4.17세이었으며, 성별은 남성 44명(28.8%), 여성 109명(71.27%),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 59명(38.6%), 없는 경우 94명(61.4%)이었다. 동아리활동을 하는 경우 79명(51.6%)이지 않는 경우 74명(48.4%)이었다. 거주형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53명(34.6%), 하숙 및 기숙사 54명(35.3%), 자취 및 기타 46명(30.1%) 순이었다. 경제력은 상 16명(10.5%), 중 125명(81.7%), 하 12명(7.8%) 이었다. 성격은 '외향적' 22명(14.4%), '내성적' 32명(20.9%), '혼합적' 99명(64.7%)으로 혼합적이 가장 많았다. '학과 적응은 잘 적응하고 있다' 83명(54.2%),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다'가 70명(45.8%)이었다. 면담횟수는 평균 2.38±1.69회이었다. 지난학기 평점은 3.5미만 112(73.2%), 3.5이상 41명(26.8%)이었다[Table 1].

### 3.2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적응 정도

대상자의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적응 정도는 Table 2과 같다.

대학적응은 평균 3.37점(5점 만점)이었고, 인성은 평균 3.82점(5점 만점). 대인관계 유능성은 평균 3.61점(5점 만점), 의사소통은 평균 3.56점(5점 만점), 임상실습적응은 평균 3.54점(5점 만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153)

Variables	Mean±SD	min	Max
College adjustment	3.37±0.50	2.26	4.79
Character	3.82±0.46	2.82	4.98
Interpersonal competence	3.61±0.47	2.45	4.83
Communicative competence	3.56±0.38	2.24	4.67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3.54±0.54	1.67	5.00

###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적응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대학적응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성은 종교( $t=2.54, p=.012$ )와 학과적응( $t=2.94, p=.004$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성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4.98, p=.008$ ), 사후분석결과 외향적 성격이 내성적

Table 3. College adjustment, character, interpersonal competence,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3)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llege adjustment		Character		Interpersonal competence		Communicative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Scheffé
Sex	Male	3.27±0.45	-1.59 (.115)	3.76±0.46	-1.60 (.291)	3.56±0.44	-0.85 (.397)	3.44±0.37	-2.23 (.027)	3.59±0.45	0.62 (.540)
	Female	3.41±0.51		3.84±0.45		3.63±0.48		3.60±0.38		3.53±0.58	
Religion	Yes	3.40±0.48	0.58 (.565)	3.93±0.45	2.54 (.012)	3.69±0.43	1.70 (.092)	3.58±0.33	0.56 (.575)	3.55±0.57	0.05 (.958)
	No	3.35±0.51		3.75±0.45		3.56±0.49		3.54±0.41		3.54±0.53	
Circles activity	Yes	3.33±0.49	-1.07 (.287)	3.84±0.45	0.51 (.609)	3.53±0.44	-0.44 (.659)	3.51±0.38	-1.33 (.187)	3.57±0.53	0.59 (.559)
	No	3.41±0.51		3.80±0.46		3.62±0.47		3.60±0.39		3.52±0.56	
Residence type	With parents	3.32±0.50	0.88 (.418)	3.80±0.48	0.89 (.413)	3.59±0.49	0.82 (.442)	3.62±0.39	1.82 (.166)	3.46±0.56	1.91 (.152)
	Dormitory	3.44±0.53		3.78±0.43		3.63±0.44		3.48±0.38		3.52±0.54	
	Alone or Other	3.33±0.46		3.89±0.46		3.64±0.46		3.57±0.38		3.67±0.52	
Economic ability of parents	Top	3.48±0.49	0.63 (.534)	3.86±0.30	0.11 (.896)	3.54±0.43	1.51 (.225)	3.50±0.28	0.15 (.860)	3.59±0.29	0.16 (.852)
	Medium	3.45±0.50		3.82±0.47		3.65±0.52		3.56±0.40		3.54±0.54	
	Down	3.43±0.47		3.78±0.47		3.45±0.55		3.56±0.33		3.47±0.55	
Personality	Extrovert	3.48±0.39	2.37 (.097)	3.96±0.41	2.33 (.101)	3.64±0.46 <sup>a</sup>	4.98 (.008)	3.72±0.39 <sup>a</sup>	4.22 (.017)	3.68±0.67	3.85 (.023)
	Introspective	3.21±0.52		3.69±0.51		3.50±0.41 <sup>b</sup>		3.42±0.40 <sup>b</sup>		3.32±0.49	
	Mixed	3.39±0.50		3.83±0.44		3.79±0.61 <sup>c</sup>		3.56±0.36 <sup>c</sup>		3.58±0.51	
Department adaptation	Well adapted	3.42±0.45	1.32 (.189)	3.92±0.44	2.94 (.004)	3.41±0.35	1.29 (.201)	3.60±0.39	1.52 (.130)	3.68±0.54	3.62 (<.001)
	Difficult but trying to adapt	3.31±0.55		3.70±0.45		3.63±0.45		3.50±0.37		3.38±0.51	
Last semester grade	< 3.5	3.33±0.46	-1.44 (.152)	3.80±0.46	-0.88 (.382)	3.65±0.47	-0.31 (.758)	3.52±0.38	-1.57 (.119)	3.54±0.54	-0.28 (.779)
	≥3.5	3.46±0.16		3.87±0.46		3.63±0.44		3.63±0.39		3.56±0.57	

성격보다 높았다( $p=.012$ ). 의사소통은 성별( $t=-2.23$ ,  $p=.027$ )와 성격유형( $F=4.22$ ,  $p=.017$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분석결과 외향적 성격이 내성적 성격보다 높았다( $p=.017$ ). 임상실습적응은 성격유형( $F=3.85$ ,  $p=.023$ )과 학과적응( $t=3.62$ ,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3.5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적응의 상관관계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적응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임상실습적응은 대학적응( $r=.35$ ,  $p<.001$ ), 인성( $r=.39$ ,  $p<.001$ ), 대인관계 유능성( $r=.58$ ,  $p<.001$ ), 의사소통( $r=.40$ ,  $p<.001$ )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적응은 인성( $r=.66$ ,  $p<.001$ ), 대인관계 유능성( $r=.30$ ,  $p<.001$ ), 의사소통( $r=.29$ ,  $p<.001$ )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인성은 대인관계 유능성( $r=.60$ ,  $p<.001$ ), 의사소통( $r=.48$ ,  $p<.001$ )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의사소통( $r=.68$ ,  $p<.001$ )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N=153)

Variables	1	2	3	4	5
	r(p)				
1	1				
2	.35 ( $<.001$ )	1			
3	.39 ( $<.001$ )	.66 ( $<.001$ )	1		
4	.58 ( $<.001$ )	.30 ( $<.001$ )	.60 ( $<.001$ )	1	
5	.40 ( $<.001$ )	.29 ( $<.001$ )	.48 ( $<.001$ )	.68 ( $<.001$ )	1

<sup>1</sup>Clinical practice adaptation, <sup>2</sup>College adjustment  
<sup>3</sup>Character, <sup>4</sup>Interpersonal competence  
<sup>5</sup>Communicative competence

### 3.6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상실습적응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과 일반적 특성 중 성격유형, 학과적응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성격유형과 학과적응의 경우 더미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Stepwise)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90-99, VIF 1.01-1.11으로, 공차 한계가 0.1이상, 분산팽창지수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의 경우  $d=1.754$ 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여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유능성( $\beta=.502$ ,  $p<.001$ )이었고, 그 다음으로 학과적응( $\beta=-.215$ ,  $p<.001$ ), 대학적응( $\beta=.174$ ,  $p=.010$ ) 순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41.1%이었다( $F=34.11$ ,  $p<.001$ ) [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N=153)

	B	S.E	$\beta$	t	p
(Constant)	1.130	.342		3.307	.001
Interpersonal competence	.585	.078	.502	7.518	$<.001$
Department adaptation	-.235	.070	-.215	-3.366	.001
College adjustment	.191	.073	.174	2.607	.010
$R^2=0.41$ , $F=34.11$ ,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 1년차를 대상으로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인성은 종교와 학과적응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29]에서 인성은 종교, 전공만족도에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선행연구[30]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인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15]에서 대학생 인성은 하나의 하위영역에 국한되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발달과 함께 이루어

어지며, 좋은 인성 형성은 학생 스스로도 노력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나 혼자서 훈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대학 교육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는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마련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타인의 이해와 타인수용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유능성은 성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31]에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는 대인관계능력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므로 다양한 교과목 이수와 교과 외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유능성을 강화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도록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의사소통은 성별과 성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분석결과 외향적 성격이 내성적 성격보다 높았다. 선행연구[32]에서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예비의료인은 다른 직종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전문가이므로 대학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남학생과 내성적 성격을 가진 대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은 평균 3.54(5점 만점)으로 성격유형과 학과적응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3]에서 임상실습적응은 평균 3.58점(5점 만점)으로 학과적응과 임상실습적응과 순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은 학과 수업과 임상실습을 통해 예비의료인으로서의 지식, 기술, 태도를 익히고 직업에 대한 본인의 적성과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므로 학과적응과 임상실습적응이 중요하다.

대학적응은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선행연구[29]에서 대학생활적응과 대인관계, 인성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간호대학생의 연구[31]에서도 대학생활적응과 인성, 대인관계는 상관관계가 있어 본 연구결과가 같았다. 인성은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29]에서 인성과 대인관계와 상관관계가 있어 본 연구결과가 같았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의사소통과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은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유능성이었고, 그 다음으로 학과적응, 대학적응 순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41.1%이었다. 본연구와 선행 연구를 토대로[33] 임상실습적응과 학과적응, 대학적응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학과와 대학적응을 돕고 대인관계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상실습은 환자가 실제로 치료와 간호를 받는 현장이므로 교내실습과 달리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실제로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준다. 선행연구에서도 임상실습적응은 대인관계같은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33]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중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34]. 또한, 임상현장은 환자의 인권문제와 개인정보보호 등, 환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다. 따라서 임상실습 시 학과에서 지식, 기술, 태도를 숙지하여 임상현장에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환자는 인권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므로[35] 실습을 통해 환자의 안위, 안전을 지키고 건강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선행연구[36]에서도 임상실습 준비도가 임상실습적응에 유의한 영향으로 나타나, 임상실습 전에 임상수행능력을 갖추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임상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의학계에서는 2009년 9월부터 시행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임상수행능력 평가(CPX)와 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OSCE)의 형태로 치러지며, 필기시험을 통해 검정하여왔던 의학 지식뿐 아니라 임상술기,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 의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검정하고자 시행되는 시험이 실시되고 있고[37], 간호교육계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해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Simulation), 임상수행능력평가(CPX), 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OSCE) 등 다양한 교내실습을 도입하여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임상수행능력평가는 졸업시점에 통합적으로 실시한다.

임상실습 시작 전에 임상실습적응을 위한 임상수행능력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임상실습적응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실습 1년차의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며 임상실습적응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은 대학적응, 인성,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유능성이었고, 그 다음으로 학과적응, 대학적응 순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41.1%이었다.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는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마련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타인의 이해와 타인수용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실습 시작 전에 임상실습적응을 위한 임상수행능력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임상실습적응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임상실습적응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K. M. Seol, S. H. Lee, "A Study on Changes of Cohesiveness and Self-Disclosure, and Intimacy in the Group Counseling Process", *Dong-A University Student Research*, Vol.19, no.2, pp. 47-66, 1991.
- [2] S. Trenholm, A. Jense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6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3] R. B. Rubin, M. M. Martin,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11, no.1, pp. 33-44, 1994.
- [4] J. G. Koo, "The Effects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Using a Liberal-Arts Course on Communication, Interpersonal and Perceived Therapeutic Factor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7, no.1, pp. 11-26, 2006.
- [5] J. S. Ju,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05.
- [6] J. H. Kw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larification,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Journal of Evaluation on Counseling*. Vol.4, no.1, pp.37-49, 2011.
- [7] S. W. Bae, *The relations between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The mediating roles of empathy ability-*,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2015.
- [8] H. Chu. *Individual and College Effects on Earnings of New Gradu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2010.
- [9] H. J. An, B. Y. Chung,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2, no.2, pp. 224-228, 2006.
- [10] B. H. Spitzberg, W. R. Cupach,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1989
- [11] R. M. Epstein, R. L. Street,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in cancer care*. Bethesda, MD: National Cancer Institute; 2007.
- [12] J. R. Curtis, D. B. White, "Practical Guidance for Evidence-Based ICU Family Conferences", *Chest*, Vol.134, pp. 835-843, 2008.  
DOI: <http://dx.doi.org/10.1378/chest.08-0235>
- [13] J. M. Adams, J. I. Erickson, Applying the Adams influence model in nurse executive practice.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41, no.4, pp. 186-192, April 2011.  
DOI:<http://dx.doi.org/10.1097/NNA.0b013e3182118736>
- [14] N. R. Heo, "A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in Undergraduate Student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4, no.1, pp.22-31, March 2015.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5.24.1.22>
- [15] E. M. Park, "Effects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2, no.7, pp. 497-509,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2.12.07.497>
- [16] J. H. Park, K. H. Kim, H. R. Jun. "A National Sample Survey of Medical Students about Their Perception and Evaluation on Medical Study, Career Plan, and Medical Care System: Part 2. Career Plan after Graduating from Medical School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11, No.2, pp.365~378, 1999.
- [17] S. N. Kim, H. J. Kim, S. O. Choi, "Effects of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ducation Program Including Meaning in Life on Attitudes Toward End-of-Life Care and Meaning in Lif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3, pp. 454-463, 2011.
- [18] M. S. Roh, H. J. Jeon, H. Kim, H. J. Cho, S. K. Han, B. J. Hahm, et al., "Factors Influencing Treatment for Depression among Medical Students: A Nationwide

- Sample in South Korea. *Medical Education*, Vol.43, no.2, pp. 133-139, February 2009.  
DOI: <https://doi.org/10.1111/j.1365-2923.2008.03255.x>.
- [19] S. K. Min, W. C. Shin, K. I. Kim, J. I. Chung, D. K. Kim,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between Medical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39, pp. 1054-1060, 2000.
- [20] H. J. Kim, J. S. Huh, "The Right of the Clinical Training for the Medical Students and Privacy of the Patients",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ol.21, no.2, pp. 107-123, December. 2013.
- [21] J. H. Park, "Need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5, no.6, pp. 3321-3332, 2013.
- [22]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no.4, pp. 1149-1160, 2009.  
DOI: <http://doi.org/10.3758/BRM.41.4.1149>
- [23] S. Y.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2017
- [24] E. I.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1, no.2, pp. 69-92, 2009.
- [25] Y. S. Lee, H. Y. Kang, S. J. Kim, "A Validation Study of the Character Index Instrumen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Vol.31, pp. 261-282, 2013.
- [26]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H. T. Reis,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no.6, pp. 991-1008, 1988.
- [27] C. D. Kim, S. I.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 *Student Study*, Vol.35, No.1, pp.83-95, 2001.
- [28] S. J. Lee, Y. K. Ch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Research Report, RR2003-15-3.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 [29] M. J. Jun, E. K. Noh,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4, pp. 433-442,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4.433>
- [30] E. Y. Yeom,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Interpersonal Problems, and Academic Stress on Problem-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 pp. 209-220, January 2019.  
DOI: <http://dx.doi.org/10.21742/AJMAHS.2019.01.22>
- [31] S. S. Sim, M. R.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2 pp. 634-642,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2.634>
- [32] N. H. Kim,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6, pp. 735-744, June 2018.  
DOI: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6.84>
- [33] N. J. Je, M. R. Park, "Impact on Department Adaptation of Field Practice Adaptation, College Adaptation, and Awareness of Dea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0 pp. 300-312,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0.300>
- [34] A. K. Lee, H. S. You, I. H. Park,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1, no.2, pp. 154-163, 2015.  
DOI: <http://dx.doi.org/10.1111/jkana.2015.21.2.154>
- [35] K. H. Lee, S. W. Chong, "A Study on the Status and Necess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Nursing College",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Vol.8, no.1, pp. 111-140, 2013.
- [36] S. Y. Kim, Y. S. Shin,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9 pp. 234-242,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9.234>
- [37] D. Y. Keum. "Development of CPX/OSCE Curriculum for Medical License Examination" *Keimyung Medical Journal* Vol.28, pp. 63-74, 2009

---

제 남 주(Nam-Joo Je)

[정회원]



- 2016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2016년 8월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9월 ~ 2017년 2월 : 경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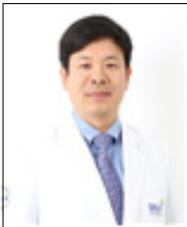
<관심분야>

생명의료윤리, 치매, 웰다잉

---

화 정 석(Jeong-Seok Hwa)

[정회원]



- 2004년 9월 : 경상대학교 의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관심분야>

비뇨기계 종양, 전립선 질환

---

박 미 라(Meera Park)

[정회원]



- 2016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 2013년 3월 ~ 2015년 12월 :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신생아관리, 임신·분만, 모유수유, 성교육